

中國 政治體制變化에 대한 政治文化的 眺望: 儒家的 레닌主義체제에서 儒家的 新權威主義-開發獨裁體制로의 變化*

고성빈**

목 차

| | |
|---|---|
| <p>I. 序論</p> <p>II. 中國政治文化的 二重的 推進力: 儒家文化和 偶像破壞의 傳統</p> <p>III. 永續性和 偶像破壞의 傳統의 結合: 儒家的 레닌주의체제</p> | <p>IV. 體制變化要因의 增大</p> <p>V. 折衷의체제의 등장: 儒家的 新權威主義-開發獨裁體制</p> <p>VI. 結論</p> |
|---|---|

I. 序論

인간의 思想은 政治體制와 制度의 特性을 규정하며 思想은 理念과 文化로 구성이 된다. 즉 사상과 이념의 조류와 그 변화가 정치체제의 特性을 변화시킨다고 볼 수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政治體制는 중국특색의 사상과 이념의 구체적인 구현이라고 볼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지적전통에서 볼 때 장래의 정치체제와 제도도 현재의 정치이념과 意識의 基礎위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새로운 潮流를 흡수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진화적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의 변화과정과 장래를 이러한 중국인, 중국사회의 사상적, 지적조류의 進化 및 適應을 획득해 가는 영속적 과정이라고 보고 그 理念과 意識의 變化를 연구하여 政治體制 변동의 가능성과 장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정치이념과 문화에는 “영속적 측면”과 “비영속적인 이상과피적 측면”이 동시에 내재해 있다고 가정한다. 즉 전통적 사상인 유가사상의 전승과 각 시대에 있어서 외래사조의 유입, 내부의 적응적 변화가 어우러져 중국특색의 절충적 사상, 문화, 정치이념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대 공산주의체제에서는 儒家적문화와 그 전통 및 현대의 공산주의 혁명이념 - 특히 Leninism - 의 절충적 결합과 具顯이라고 볼 수있다. 즉 유가문화와 공산주의이념이 결합하여 유가적 레닌이즘의 정치문화와 체제가 형성되었다.¹⁾

* 본 논문은 1999년 7월 5일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세미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정치외교학과 강사,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1)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Sung Bin Ko, "Confucian Leninist Stat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이러한 유가적 레닌주의 정치체제는 80년대 경제개혁정책의 추진이래 지속적인 개방과 대외교류 증대, 자본주의적 인센티브제의 도입으로 사회주의이념의 약화와 함께 체제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 공산당의 정치엘리트들은 정치적으로는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로의 변화를 거부하고 유가사상에 있어서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강화로서 정치개혁 요구에 대처하는 한편 경제적인 고속성장전략으로 정치적 불만을 상쇄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본고에서는 1989년 六-四天安門사태가 중국공산주의 정치체제와 사회변화의 큰 분수령이 된 사건이라고 가정한다. 1911년 辛亥革命이래로 중국사회는 내외적으로 군벌주의, 식민주의의 침탈로 혼란의 와중에서 1919년 五-四運動을 겪으면서 사회조류는 외래사상과 중국본연의 전통적 사상 및 그 잔재들과의 조우를 겪으면서 수많은 실험적 논쟁과 토론이 이루어졌다.²⁾ 그러한 사상적, 이념적 혼동과 격변이 정치운동을 촉발시켜 공산주의혁명으로 귀결되었다면 六-四천안문사태는 경제개혁이 전개되면서 유입된 외래사조와 중국식사회주의와의 갈등적 遭遇를 하는 와중에 지식인들이 정치개혁을 극렬한 방법으로 요구하면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중국정치체제와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이념과 사상으로서 정치체제와 사회를 개혁하라는 민중과 지식인의 목소리를 극단적방법으로 분출한 운동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크고 작은 시위사태가 있었지만 정치적권력투쟁과 관련하여 一回적인 사건으로 끝난것에 비추면 이 두 시위운동은 이후의 사회조류의 변화를 거세게 추진했다는 면에서 장기적 과급효과가 큰 것이 또한 공통된 특징이다. 五-四운동도 당장의 구체적인 정치체제의 변화에는 실패하였으나 그후의 정치운동에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공산주의체제가 성립이 되었듯이 六-四천안문사태를 가까스로 수습하여 당장의 정치체제변화는 면하였으나 江-朱지도체제의 중국은 급변하는 이념적 사조와 정치개혁요구에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과도기적인 “後공산주의체제” (Post-Communist Political System)의 양상을 띄고 있다고 가정할 수있다. 즉 새로운 사상과 이념의 변화로 인한 체제변화내지는 혁명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본다. 다만 한가지 차이점은 五-四運動이 중국의 주권이 외세와 군벌에 의해 유린되던 시기에 일어났었고 六-四천안문사태는 중국공산당이 강력하게 주권을 발휘하고 있고 어느정도 경제개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중국은 “탈사회주의 이념화”가 진행중이며 이로 인한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정통성의 약화와 체제신뢰도의 붕괴를 막기위해 “유가적 권위주의”와 “아시아적 가치에서의 현대화와 경제

Asian Perspective, Vol. 23, No. 2, July 1999, pp. 225-244; Lucian W. Pye, The Mandarin and the Cadre: China's Political Cultur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88), pp. 30-35. 초기 중국사회주의에 대한 Leninism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ichael Y. L. Luk, The Origins of Chinese Bolshevism: An Ideology in the Making, 1920-1928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Benjamin Schwartz and Maurice Meisner argue that the founding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as the result of the "messianic message of Leninism." See Benjamin Schwartz,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 27; Maurice Meisner, Li Ta-Chao and the Origin of Chinese Marx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 xiv-xv.

2) 五-四運動이후의 사상적 논쟁에 대해서는 Benjamin Schwartz (ed.), Reflections on The May Fourth Movement: A Symposiu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五-四運動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는 Chow Tse-tung, The May Fourth Movement: Intellectual Revolution in Moder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7).

개발전략의 강화"로서 정치개혁에 대한 불만을 차단, 체제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마치 과거의 개발독재체제의 韓國과 싱가포르, 臺灣과 유사한 "신권위주의-개발독재체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II. 中國政治文化的 二重的 推進力: 儒家文化와 偶像破壞的 傳統

역사적으로 중국은 전통적 유가문화와 이를 파괴하려는 힘 - 개혁적인 혹은 혁명적인 - 이 항상 대치하며 전개되어 왔다. 게다가 이러한 지적조류의 충돌은 시대의 정치이념과 정치체제의 특성을 결정지웠고 엘리트들의 갈등도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발전 되었던 것이다.

근대 이래로만 보아도 康有爲와 梁啓超의 입헌군주제로의 개혁기도는 기존의 유가문화적 타성에 서 본다면 혁명적인 것이었으나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유가문화와의 타협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어서 발생한 1919년 五四運動에서의 전통의 부정과 우상파괴, 과학과 민주주의도입 주장은 중국이 유가문화의 봉건적, 부정적인 유산들을 탈피하여 근대화의 길을 열어 나가는데 큰 추진력을 제공하였다. 즉 專制政治의 封建的 요소를 탈피하고 반식민지상태인 중국의 주권을 지키는데 정신적 수호신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五四運動에서의 유가문화의 우상파괴적 전면적 부정은 오히려 실패 하였다. 기존의 사상과 이념 및 전통의 우상파괴적인 "전면적 부정"이 성공적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대체하려는 사상과 이념적 기반이 성숙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중국은 외래사상 - 科學과 民主主義思潮 - 을 국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념적, 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대안없는 전면적 부정 이후에 올 수 있는 理念의 空洞化에 대비한 省察的 適應(Reflective Adaptation)의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가문화의 전면적 부정은 성공하지 못하였고³⁾ 이후에 나타난 이념적 공동화현상과 군벌의 할거와 식민주의로 초래된 정치적 혼란은 결국 외래사상인 사회주의이념에 의한 공산주의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말았던 것이다.

두 번째의 반유가적 우상파괴운동은 1973년 文化大革命의 와중에서 일어났다. 이 때에는 유가사상의 人本主義, 理想主義적인 면이 공격당하였다. 이 운동은 급진적 毛澤東주의자들 - 특히 四人幫 - 과 그들을 추종하는 지식인들과 공산당관료들에 의해서 조정되었고 이들은 역사적 우화들을 이용하여 유가사상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권력투쟁에 이 운동을 이용하였다.⁴⁾ 결과적으로 五四運動

3) Lin Yu-sheng, "Radical Iconoclasm in the May Fourth Period and the Future of Chinese Liberalism", in Benjamin I. Schwartz (ed.), *Reflections on the May Fourth Movement: A Symposiu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p. 23-58; Lin Yu-sheng, *The Crisis of Chinese Consciousness: Radical Antitraditionalism in the May Fourth Era*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9); Lin Yu-sheng, "Reluctance to Modernise: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on China's Search For Political Modernity", in Joseph P. L. Jiang (ed.), *Confucianism and Modernisation: A Symposium*, (Taipei: Freedom Council, 1987), pp. 21-34; Wen-shih Peng, "The Impact of the Generalist Ideal of Confucianism on Contemporary Chinese Administration", Joseph P. L. Jiang (ed.),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A Symposium*, pp. 161-172.

4) 이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erle Goldman, "China's Anti-Confucian Campaign, 1973-1974", *The*

이후와 같이 이념적, 사상적으로 진지한 토론과 사색이 - 省察的 適應 - 결여된 이 운동은 지식인들과 인민들을 혼돈으로 몰고 갔으며 정치상황의 변동과 함께 이념적, 문화적으로 중국사회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사그러 들고 말았다.

III. 永續性과 偶像破壞的 傳統의 結合: 儒家的 레닌주의체제

이러한 중국의 이념적 보수성과 혁신성의 양면적 정치문화는 정치엘리트들의 현실주의적 타협에 의해서 절충적 정치이념과 정치체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현대 중국에 있어서는 유가사상과 Marxism-Leninism이 그 정치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중국은 공적인 영역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문화적요소가 큰 역할을 한다고 Lucian Pye는 주장한다. 현대 중국은 “유가적 레닌리즘”(Confucianist Lenism)이라는 전통과 혁신의 결합이라는 折衷的 문화가 존재하며 그것은 고도의 도덕적 개념을 함유한 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한다.⁵⁾

즉 Pye는 유가적 레닌리즘의 정치문화가 지식인들의 정치참여행태를 설명하여 준다고 하였다. 유가사상이 제정시대에 있어서 개인의 행위규범과 개인, 국가, 사회간의 관계에 윤리적 모델을 제공해준데 대해 Marxism-Leninism은 공산화된 중국에 윤리체계를 제공하였다. 과거의 學人官僚(Scholar-Official)들은 유가정전에 대한 독서와 국가시험제도로써 그들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상의 헌신으로써 지위를 보장받는다. 또한 유가사상과 막스 레닌리즘은 중국사회에 있어서 “正當한 國家와 社會”의 개념을 제공한다.

중국지도자들의 사상에서 유가사상의 영향은 劉少奇의 논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공산당원들이 충실한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고 한다. 훌륭한 당원은 구태에 얽매이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광범위한 대중의 혁명투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신력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新社會主義者”의 개념이야말로 유가사상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自己修養”의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⁶⁾ 그는 毛澤東사상의 특징에 대해서도 Marxism-Leninism의 중국 상황에서의 적용이라고 설파하였다. 1945년 劉는 중국공산당 七全大會의 黨憲개정정보고에서 毛澤東사상은 “Marxism-Leninism의 중국적 적용”을 이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정의 내렸던 것이다.⁷⁾ 비록 毛의 정책이 때때로 상황에 따른 전략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하여도 劉는 毛사상의 근원은 중국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후로부터 Marxism의 중국화(Sinified Marxism)와 중국식사회주의(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는 毛澤東사상과

China Quarterly, September 1975, pp. 435-462; Merle Goldman, China's Intellectuals: Advise and Diss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p. 435-462.

5) Lucian Pye, The Mandarin and the Cadre: China's Political Cultur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88, pp. 30-32.

6) Liu Shaoqi, "How To Be a Good Communist?", Selected Works of Liu Shaoqi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1984), Vol. 1, pp. 107-168. 유가사상, 毛澤東사상, 중국공산주의혁명과의 연관성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는 송영배, 유교적전통과 중국혁명: 유교사상, 유교적 사회와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2), 특히 pp. 274-458를 참조.

7) Liu Shaoqi, "On The Party", Selected Works of Liu Shaoqi, Vol. 1, pp. 330-335.

중국공산주의체제의 특성을 규정하는 대명사가 되었으며 중국공산당의 이념적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심지어 鄧小平의 개혁이념조차도 “중국식 사회주의”의 발전적 적용이라는 이념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서야 가능하였던 것이다.

또한 러시아혁명이후 중국의 지식인들은 레닌이즘을 정치적 신조로 삼기 시작하였다. 레닌의 “帝國主義論”, “前衛黨理論”, “民主集中制” 등은 중국 지식인들에게는 새로운 진보적이론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혁명후 러시아의 급속한 산업화는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공산주의의 성공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결과가 되었다.⁸⁾

특히 레닌의 이론은 공산주의 지식인 뿐만 아니라 國民黨과 관련된 지식인들에게도 큰 호감을 불러 일으켰다.⁹⁾ 중국의 지식인들에 의하면 러시아 10월 혁명은 모든 피압박 민족들에게 해방의 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1917년 10월 혁명이후 중국에서는 1919년 五四運動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사회주의 지식인들에 의하면 중국에 있어서 舊民主主義혁명에서 新民主主義혁명으로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⁰⁾ 중국의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유가사상에서 더 이상 개혁의 이상을 발견치 못하였고 이것을 부정하려는 지적조류 즉, 전통에 대한 우상파괴적 풍조는 새로운 사상으로서는 유가사상을 부정한 후의 빈 공간을 매우는 사상이 필요하였다. 서구와 일본의 植民主義에 실망을 느낀 이들은 러시아 10월 혁명에서 현실적 이상을 발견하였고 五四運動 이래로 레닌주의는 중국사회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혁명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1921년 공산당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소련이 상징적으로 帝政러시아가 청으로부터 획득한 영토를 반환한다는 “카라칸선언”(Kharakhan Declaration)을 발표하면서 孫文을 비롯한 민족주의적 지식인들과 사회주의 지식인들은 레닌주의에 더욱 호감을 갖게 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孫文과 그의 동료들은 辛亥革命이래로 계속된 혁명의 좌절로 인해 서구식의 민주주의에의 열망이 점차 시들고 있었던 것이다.¹¹⁾ 孫文은 중국사회에 있어서 공산주의이념을 기초로한 계급의식의 결여를 역설하면서도 Lenin의 前衛黨(Vanguard Party)영도하의 대중조직과 군사력의 중요성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제 1차 국공합작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 지게 된다.

초창기 중국공산당의 활동은 레닌의 혁명방식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식이었다. 즉 陳獨秀, 李立

8) 후진국에서의 Marxism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Raymond Aron, Social Structure and the Ruling Clas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No.1, Vol.2, 1950, p. 135; T. B. Bottomore, Elites and Society, England, Penguin Books, 1964, pp. 100-101.

9) 예를 들어 戴季陶, 胡漢民, 王精衛등을 들 수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Chester Tan, Chinese Political Thought in the Twentieth Century, pp. 176-184, 191, 204-218; Benjamin Schwartz,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p. 32.

10) 공산주의 엘리트들은 1911년 辛亥革命으로 전제군주제를 타파한 것은 舊민주주의혁명이었고 1919년 五四運動으로 인한 사회주의운동의 도입과 연이어 공산주의혁명으로 이어진 것은 新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해석하였다.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毛澤東選集(北京:人民出版社, 1964), Vol.2, pp. 655-704; Zhou Yang, “The October Revolution and the Task of Building a Socialist Culture”, Chinese Literature, January-February 1958, pp. 123-124.

11) Benjamin Schwartz, “Themes in Intellectual History: May Fourth and After”, pp. 429-430.

손문과 맑시즘에 대해서는 A. James Gregor, Marxism, China, and Development: Reflections on Theory and Reality, pp. 175-206을 볼 것.

三. 瞿秋白, 陳紹禹 등 초창기 공산당지도자들은 레닌주의의 전위당영도하의 동시다발적 도시중심의 폭동노선을 채택하였다.¹²⁾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혁명방식의 맹목적인 추종은 초기 공산주의혁명의 실패를 가져왔으며 이어서 毛澤東은 레닌의 혁명이념을 중국적 전통과 현실에 새로이 적용시키게 된다.¹³⁾

毛는 일찌기 초기 공산당의 혁명 전략에 회의를 품었는데 그의 이러한 사상은 1927년에 이미 중국의 현실을 지적하고 농촌과 농민위주의 혁명전략을 중시할 것을 역설한데서 잘 나타나 있다.¹⁴⁾ 延安長征이후 당권을 장악한 毛는 초기의 자신의 사상에 레닌의 이념을 접합하여 전위당이론과 민주집중제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공산당의 지도력(Party Leadership)은 소수의 정치인들 보다는 다수 인민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고 하여 농민의 지지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다.¹⁵⁾

Richard Solomon의 논의에 따르면 중국공산주의혁명은 유가적가치를 내포하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났고, 대다수 농민들은 유가적 “사회종속적 정향”(Social Dependency Orientat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毛의 사상과 지도력은 농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중국의 전통적 가치들과 밀접히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설파한다. 즉 毛의 혁명이론과 실천전략은 전통과 타협하고 나서야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¹⁶⁾ 이처럼 毛는 레닌이즘을 근거로 하여 농민위주의 혁명이론과 대농노선이라는 중국적 현실에서의 절충적 사회주의 이념을 확립하는데 성공하였고 이 것은 현재 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념적 정당성의 기초가 되고있다. 결론적으로 중국공산주의 정치체제는 중국의 유가적전통과 레닌이즘의 영향을 깊게 받아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V. 體制變化要因의 增大

1989년 六-四天安門사태는 1919년의 五四運動에 이어 중국에 있어서 가장 대규모이고 그 파급효과가 컸던 정치적, 사회적으로 변환기에 발생하였던 두 번째의 민중에 의한 자발적인 위상파괴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¹⁷⁾ 비록 五四運動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치체제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그 이후의 사회조류는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된다. 즉 六-四天安門

12) 공산당 초기 지도자들의 사상과 전략에 대해서는 Chester Tan, *Chinese Political Thought in the Twentieth Century* (Newton Abbot: David & Charles, 1972)을 참조.

13) 毛澤東사상의 등장과 성립과정 및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필독할 것. Stuart Schram, *The Thought of Mao Tse-tu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Benjamin Schwartz,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Benjamin Schwartz, "A Personal View of Some Thoughts of Mao Tse-tung", in Chalmers Johnson (ed.), *Ideology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China*, pp. 352-372.

14) 毛澤東,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 毛澤東選集, 第 1卷, (北京: 人民出版社, 1964), pp. 13-46을 참조.

15) 毛澤東,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毛澤東選集, 第 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64), pp. 849-880를 참조.

16) Richard H. Solomon, *Mao's Revolution and the Chinese Political Culture*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pp. xiv-xv. Solomon은 중국농민들의 사회종속적 정향이론 정치적 사회적 권위에 복종하고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의견에 동조하고 의존하려는 정향이라고 정의한다.

17) 문화대혁명기간에 있었던 天安門광장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군중집회는 관제적인 면이 있어서 자발적인 대중운동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사태 이후의 중국은 “탈사회주의 이념화”라는 거대한 조류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변 수 | 유가적-레닌주의체제 | 유가적 신권위주의-개발독재체제 |
|------------|---|---|
| 이념 | 사회주의, 공산당독재 | 탈사회주의이념화 권위주의적 일당독재 |
| 전통에 대한 태도 | 부정적이거나 중립적 | 중립적 이거나 긍정적 |
| 국가발전전략 | 사회주의 이념과 당리더십에 의한 대중동원 | 유가적 현대화추진(아시아적 가치 강조) |
| 정치개혁 | 정치개혁요구에 대한 탄압 | 정치개혁요구에 대한 억제 혹은 시기연장 |
| 경제개혁 | 부분적 인센티브제 자력갱생-자급자족우선 세계시장진입에 부정적 | 인센티브확대 해외교류와 수출확대 세계시장진입에 적극적 |
| 정치체제의 정당성 | 계급투쟁, 사상투쟁을 통한 이념의 순수성 자력갱생-자급자족달성 | 경제성장과 산업화 수출증대 복지증대 |
| 시민사회성장과 활동 | 시민조직의 성장을 탄압 전반적통제 | 시민조직의 부분적 허용 정치적 요구에 대한 통제강화 비정치적 분야에 대한 부분적 허용과 견제 |

鄧小平의 개혁으로 인한 사회 각 부문에서의 인센티브제의 확대, 외국투자와 문호개방으로 인한 외부세계와의 빈번한 접촉은 공산당지도부가 원했던 아니 원했던 중국사회를 더 이상 고립된 우물로 만들 수는 없었다.¹⁸⁾ 서서히 서구의 자유주의 사조가 중국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중국내부의 자유주의풍조의 만연이 결국은 六-四天安門사태로 분출 되었으며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자체의 정치개혁의 부재가 아니라 미국등 서구의 악의적인 대중국 “和平演變”(평화적 방법에 의한 변화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¹⁹⁾

중국 내부의 이러한 변화가 외부세계의 장기적 변화전략내지는 음모에 의해서 생성되었든 아니든 중국은 개방이래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은 六-四天安門사태 이전의 중국은 공산당 지도체제가 강력하게 사회전반을 통제하고 경제개혁의 속도와 폭을 통제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毛시대의 대중동원식의 이념교육과 반우파사상투쟁이 가능하였고 정치개혁요구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탄압되었다. 그러나 六-四天安門사태 이후에는 이러한 강력한 공산당 지도체제가 도전 받

18) 鄧小平개혁하의 중국은 그 사회적 특징을 분기점으로 하여 여기서는 2기로 나눈다. 1978년 이래 개혁이 시작된 이래로부터 1989년 六-四 天安門사태 까지가 1기이다. 그 이후 1997년 그의 사망까지가 2기이다. 1기의 특징은 레닌주의적 당지도체제하에서 사회주의이념-동원체제의 유지, 점차적 인센티브제의 확대가 특징이며 2기의 특징은 江-朱체제의 등장과 함께, 南巡講話이래 탈이념-동원체제가 서서히 등장하게 되면서 鄧의 사망으로 본격적인 탈이념가속화, 동원체제의 와해, 신권위주의와 유교적 현대화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9) 이에 대해서는 고성빈,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 신아세아, 1997년 여름호, pp. 161-163. 미국의 평화적 변화전략은 소련과 東歐圈의 인권문제를 공격하고 식량 금수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소련의 만성적 식량부족을 부채질하고 폴란드 사태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병행함으로써 소련과 동구의 몰락을 재촉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장기적 “平和的 變化”(Peaceful Evolution)전략을 소련과 동구에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시도하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으며 이완된 통제체제로 변화하게 되고 9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대중동원식의 이념투쟁과 반우파 투쟁이 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사회 각부문에서 인센티브제의 확대로 공산당내부의 개혁세력들조차 더 이상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탈이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비교하려는 체제변화의 요인이 되는 변수들을 열거하여 그것들의 변화를 살피고 量에서의 質적인 체제변화의 전개를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1. 理念의 역할

鄧小平개혁의 말기이래로 현재 중국은 脫社會主義이념현상(De-ideologiz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理念空洞化현상을 채우기위한 정치적 개혁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산당은 지도력강화를 추구하고 정치개혁을 지연시키고 경제부분에서의 인센티브확대로서 그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탈이념현상에 의한 큰 특징으로서 국내적으로 大衆動員과 階級鬭爭, 思想鬭爭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외부위협이나 체제도전에 대항하기 위한 대중동원식의 전략은 그 의미가 거의 없어졌다. 정치적 동원의 정당성의 기반이었던 이념동기가 약화된 지금은 경제적 인센티브의 확대로 인한 대중의 복지증대에의 관심제고와 그로 인한 정치적 정통성, 체제신뢰도의 확보가 가장 큰 체제 안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실례로 鄧小平시대에는 이념에 의거한 보수주의자와 개혁주의자의 권력투쟁이 국내정치에서 중요한 변수였으나 鄧체제말기 이후로부터 江-朱체제가 성립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이 경제정책의 성공과 실패여부가 정치적 풍향을 판가름 하고 있다.²⁰⁾

2. 傳統에 대한 態度와 國家發展戰略

五四運動의 이상과파괴적요인에 대한 이념의 공동화상태에서 공산주의혁명이 성공하였다. 그러나 초기 공산주의혁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毛澤東은 초기 당지도자들의 혁명방식에 대한 비판과 수정을 가하고 당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한다.²¹⁾ 결국 중국적 현실과 전통에 대한 절충으로서 유가적 레닌주의체제가 성립하였다.²²⁾ 결과적으로 毛澤東체제의 전통에 대한 태도는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

초기 사회주의엘리트들은 전통의 부정으로서 러시아혁명의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상을 받아 들였으나 계속되는 소련식 혁명전략에의 맹목적 추종은 실패를 자초하여 毛澤東의 주도로 延安長征을 거치면서 중국적 현실과의 절충으로서 “中國式 社會主義”를 도입하게 되었다. 毛澤東에 의해서 적용된 이 이념은 농촌위주의 광범위한 지구전을 강조하고 국내전략도 자력갱생의 기치하에 광범위

20) 朱鎔基총리의 경제개혁결과가 장래의 그의 정치적 입지를 결정할 것이 분명하며 나아가 江澤民체제의 지도력이 시험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21) Benjamin Schwartz,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을 참조.

22) 유가적 레닌주의체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Sung Bin Ko, "Confucian Leninist Stat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참조.

한 농민동원식의 개발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毛의 개발전략은 大躍進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지도자 개인의 권위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조주의화하면서 비판적, 실용주의적 지식인들로부터 유가적 전통에서의 人本主義적 항거에 부딪치게 된다.²³⁾

문화대혁명 이후에 권력을 장악한 鄧小平체제는 레닌주의체제를 유지시키면서 毛의 대중동원식의 이념적 개발전략보다 실용주의적 경제개혁을 추진하며 체제의 변혁이 아닌 개혁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개혁이 결여된 鄧의 경제적 實用主義정책은 국가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로 인한 대외개방으로 인한 외부세계와의 교류는 점차적으로 사회의 전반적 탈이념화를 가속시키게 된다. 이것은 결국 현체제의 정치적 靜態性을 부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이상과 괴적 전통으로 현체제의 교착상태를 변화시키려 하는 힘이 다시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중국문화의 영속적 특성인 유가사상에는 보수적, 현상유지적 전통이 강하지만 일단 그러한 현상이 지나치게 고착화되고 교조화 될 경우 그것을 변혁시키려는 인본주의적, 경제치용적인 이상과 괴적 전통이 전술한 바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개혁을 결한 경제개혁과 그로 인한 탈이념화, 정치개혁요구의 증대는 변혁적 사조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치문화에 있어서 위에서 논한 바대로 유가적 전통의 영속성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영향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의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것이다.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신념은 약화 되고 있으나 전반적서구화에 대한 지식인과 대중의 민족주의적 혹은 문화주의적 반감으로 전통에 대한 태도는 다시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는 다음에 오는 체제도 중국문화의 영속성측면과 타협하는 형태임을 예상케한다. 즉 탈사회주의이념화 경향이 가속화 되면서 그를 대체할 정치체제와 개발전략은 유가적 권위주의에 기초한 신권위주의-개발독재의 방향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 政治-經濟部門의 改革

鄧小平의 경제개혁은 자급자족경제능력의 제고를 위해 대외투자와 개방이 필수적이었다. 즉 毛澤東시대의 궁핍한 국내경제에서 부분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자급자족수준을 높이자는데 있었다. 그 중에서도 농업현대화가 제일 우선시 되었다. 이를 위해 鄧小平은 농촌지역의 부분적 인센티브제를 확대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도시산업화와 적극적 개방은 자제하는 상황이었다.

80년대 초, 부분적 경제개혁은 당내에 개혁파와 보수파의 권력투쟁을 야기시킨다. 그 것이 첨예하게 폭발한 것이 1989년 六-四天安門사태다. 소수 지식인과 학생들은 경제개혁에 극한된 개혁을 정치부문에까지 확대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서구식의 언론자유를 요구하였다. 즉 경제개혁이 물고 은 대외개방과 그로 인한 자유스런 정보의 공개는 지식인과 학생들의 요구를 정치부문에까지 확대시키게 된것이다. 그리고 부분적 경제개혁으로 인한 지역간의 불균형, 관료들의 부패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3) 지식인들의 비판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Ko Sung Bin, "Dissent of Intellectuals and Political Culture in Contemporary China"(영문), 中蘇研究, 1997년 봄 21권 1호, pp. 201-232; Merle Goldman, China's Intellectuals: Advise and Diss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六-四天安門 사태는 개혁체제에 커다란 분수령이 되었다. 1986년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胡耀邦의 실각 이후에 남아있던 개혁파인 趙紫陽을 실각시키고 鄧小平은 陳雲, 彭眞, 梁尙昆 등의 보수파원으로 들과의 타협으로 사태를 수습하였다. 중국의 개혁은 여기서 대변동과 후퇴를 겪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鄧은 江澤民, 朱鎔基 등 개혁지향적인 지방의 指導者들을 후계로 지명하여 오히려 예상을 뒤엎고 보수파를 억제, 더욱 적극적인 개방을 선택한 것이다. 그의 “南巡講話”²⁴⁾는 중국의 경제개혁에 더욱 힘을 불어넣었고 이후 세계시장으로의 적극적 진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六-四天安門 사태는 보수파의 이념우선의 유가적 레닌주의 정치체제를 보수적으로 더욱 강화 시켰다가 보다는 경제개방의 부산물로서의 인민의 정치개혁에의 거센 요구를 완화시키기 위해 오히려 경제적 인센티브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로써 탈이념화는 더욱 가속화 하게 되었으며 클린턴 행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상황과 의도를 이해하고 의회의 보수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連繫정책(Engagement Policy)으로 선회하게 되었다.²⁵⁾

그러나 鄧小平개혁의 광범위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의 “4大 主要原理”²⁶⁾에서 확인된 바와같이 궁극적으로는 레닌주의적 당-국가의 독점적 통치의도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다. 鄧小平의 개혁정책은 이러한 유가적 레닌주의정치체제에서 경제적 실용주의노선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공산당독재의 강화속에서 추진된 것이며 정치적-이념적 원칙과 통제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등장한 江澤民-朱鎔基체제는 더 이상 鄧小平시대와 같은 정치적 권위를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탈이념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더욱 광범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朱鎔基총리의 국유기업의 주식회사전환정책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의 근간이되는 국유제의 경제원칙이 점차 자본주의식으로 되어 간다는 것이다. 결국 인민의 경제활동, 인센티브제의 활성화는 그 활동자체를 규정하는 정치적, 이념적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회전반적 정치, 이념우선의 규제가 이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江-朱체제는 정치개혁의 지연이나 억제에의한 불만을 경제개혁의 성공과 인민의 복지증진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毛나 鄧같은 一人의 카리스마가 부재한 상태에서 江-朱집단지도체제의 정치적 권위주의하에서 대외수출중대와 국내 산업화, 성장제일주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權威主義-開發獨裁체제 형성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24) Deng Xiaoping. “Zai wuchang, shenzhen, zhuhai, shanghai dengdi de jianghua yaodian”, Deng Xiaoping Wenxuan, Vol.3, (Beijing: Renmin chubanshe, 1993), pp. 370-383; Deng Xiaoping, “Excerpts from Talks given in Wuchang, Shenzhen, Zhuhai and Shanghai”, Selected Works of Deng Xiaoping, Vol.3(1982-1992),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1993), pp. 358-370.

25) 미국은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중-미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천명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연계정책을 천명하였다. 1997년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포한 1년 후 중-미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언한 상호 모순적인 사실은 미국이 세계의 지도력장악을 위한 다각적인 개입과 확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은 1996년 외교정책 지침에서 “개입과 확장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ament and Enlargement)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는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ament and Enlargement (1996)”, 국가전략, 제 3권 1호, 1997년 봄-여름, pp. 341-401; “A US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1997)”, 국가전략, 제3권 1호, 1998년 봄-여름, pp. 321-374을 참조.

26) 鄧小平, “建設思想基本原則”, 鄧小平文選(1975-1982), pp. 144-170을 참조할것.

4. 政治體制의 正當性

유가적 레닌주의체제하에서는 공산주의이념, 공산당,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신념을 제고시키는 이념적 순수성이 정권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인민들에 대한 政治社會化과정도 이념 및 정치교육과 사상투쟁을 통한 끊임없는 대중운동이 그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89년 天安門사태이후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신뢰는 경제개혁, 대외무역활성화 등으로 인한 물질적 가치증대, 국가가 베푸는 복지에 대한 기대와 충족정도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다. 그러므로 변환기의 江-朱체제는 사회주의이념에 대한 신뢰, 민족주의적 대외 강경전략보다도 경제개혁으로 인한 인민복지의 증대와 대외 개방과 교류 및 그 성패여부가 정권의 능력과 정치체제의 정통성의 기준이 될 것이다.²⁷⁾ 즉 江-朱체제의 안정적 확립은 사상무장과 정치적 권위주의확립이 아니라 경제개혁의 성공과 그로 인한 국내정치의 안정, 국제정치에서의 중국의 국력신장으로 인한 국가신뢰성제고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은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즉 정치적 정통성과 체제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면 할수록 인민들의 정치적 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거세어져서 더욱 탈이념화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레닌주의적 일당독재에 대한 반감이 증대되며 이를 해소키 위해 경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그러게 되면 더욱 서구식의 자유주의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여 체제변화 요구내지는 심지어 총체적 체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²⁸⁾ 즉 사회주의 이념의 고수와 정치개혁거부-경제개혁의 가속화로 불만해소-정치개혁요구의 증대와 이에 대한 억제-복지와 인세티브제의 확대로 불만 해소-더욱 정치개혁요구증대라는 모순적 상관관계로 공산당의 정치적 정통성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5. 市民社會

鄧小平개혁이래로 경제부문에서의 인센티브는 대외개방을 가져왔고 개방은 자연적으로 국외정보의 국내유입증대라는 결과를 낳았다. 1986년 胡耀邦 사망후의 天安門시위와 1989년 六-四天安門사태는 이러한 개방으로 인한 중국의 지식인들이 중심이된 시민사회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89년 天安門사태이후에 많은 반체제인사들의 시위와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비난이 국내외에서 양적으로 계속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압력은 크게 중국을 압박하고 국내외에서 반체제 시민운동을 부추기고 있다.²⁹⁾

27) 정치적 정통성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Lipset의 논의와 정의를 사용하였다. 즉 정치적 정통성이란 현정치체제가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하다는 신념을 낳게 하여 그 신념을 줄곧 지속케 하는 체제의 능력을 의미한다. Seymour M. Lipset, Political Man-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3), p. 64.

28) 1999년 7월 5일 제주대학교-아태정책연구원공동주최 “최근 동북아의 신국제질서와 한중관계”세미나에서 서진영교수는 이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였고 필자도 동의하였다.

29) 제네바 유엔 인권위에서 거론되는 中國의 인권학대와, 홍콩特區政府에서 발의한 기본권제한 법률개정안 등 두 가지이다. 결국 제네바 인권위에서 美國의 지원하에 덴마크가 제안한 “中國의 人權虐待를 비난하는 決意案”은 1997년 53개국 대표가 참석한 總會에서 채택되어 中國을 격노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권문제에 대해서 개도국들은 중국의 보복-경고위협에 눈치보느라 방관자세를 취하였고 통상이익등을 고려한 프

毛澤東과 鄧小平의 유가적 레닌주의체제하에서 중국은 공산주의 이념교육의 강화와 거의 카리스마적 일인에 의존하다시피한 권위주의적 독재하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은 전면적 통제로 그 성장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鄧小平개혁체제의 확대발전과 鄧사후 江-朱체제하에서의 지속적 탈이념현상은 많은 지식인들과 학생들, 새로이 성장하는 경제특구에서의 부유한 도시민들의 등장, 기술자, 전문직종사자들에 의한 민간부문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각 민간 부문에서 국내외 상호교류가 증대되고 국제세미나, 국외여행, 언론에 의한 지도계층의 부패 및 부정에 대한 견제가 증대되고 있다.

더구나 홍콩의 반환이후 一國二體制의 도입은 중국사회에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생성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무제한적인 정보, 통신의 흐름, 홍콩을 중심으로 한 반체제 민간세력의 확대는 이제 불가피한 현상이 된 것이다. 결국 중국에서의 시민사회의 초보적 발전은 과거와 같은 일방적 통제정책에서 시민조직의 부분적 허용으로 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정치개혁이 아니면 성장소외계층의 불만을 탈피하기가 힘들것이라 예상이 된다.

毛-鄧의 유가적 레닌주의체제에서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성장을 말살시키는 전면적 통제가 이루어졌다.³⁰⁾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鄧小平개혁의 진전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센티브제의 발달, 개방의 확대로 인하여 시민사회의 통제가 약화되고 어느정도 부분적 허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전형적으로 탈이념 우익정권에서 볼 수 있는 권위주의정치체제의 중요한 현상인 것이다. 즉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체제하에서 일반적인 통치방식으로 “시민사회의 말살”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臺灣의 蔣介石정권, 싱가포르의 李光耀 권위주의정권, 한국의 朴正熙, 남미의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은 “市民社會의 抹殺이 아닌 철저한 統制”와 개발독재가 그 특징인 바 鄧체제 말기와 江-朱체제의 중국은 이 같은 특징이 점차 농후해지고 있다고 할 수있다.

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지지의사를 철회, 미국진영에서 이탈했다. 朝鮮日報 1997년 4월 16일, 18일.

30) Barrett McCormick 과 Leszek Kolakowski은 중국이 레닌주의적 사회통제가 이루어 지는 국가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이에 대한 논의로는 Barrett L. McCormick, Political Reform in Post-Mao China: Democracy and Bureaucracy in a Leninist St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p. 3-7; Leszek Kolakowski, Leninist states begin with “the progressive destruction of civil society and the absorption of all forms of social life by the state”. See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Oxford: Clarendon Press, 1978), Vol. 3, p. 7.을 참조 할 것. McCormick은 레닌주의적 국가의 특징으로서 첫째로 사회에 대해서 독자적이며 둘째로, Max Weber의 세가지 종류의 지배유형 - “rational-legal rulership”, “traditional or patrimonial rulership”, “charismatic rulership” 중에서 레닌적 국가는 “charismatic rulership”이 위에서 아래로 “rational-legal institutions”을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실제로 당의 사회에 대한 전반적 지배가 이루어져 patron-client network, patrimonial rulership이 형성되어 국가의 이념적 정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그는 당의 사회통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더욱 카리스마적 지배동원체제를 강화하게 하는 대가를 가중시킨다고 하였다. 합리적-법적 권위를 위에서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제한적 성공밖에는 얻을 수없고 다시 가장장적권위를 강화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즉 변화하려고 하나 권위주의적 정치에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없는 상황에 머문다고 실패하였다. Edward Friedman은 다섯가지 레닌주의적 국가의 특징을 실패하였다. 첫째, 국가기구들은 사회에 깊이 침투해 있다. 둘째, 국가가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 셋째, 언론을 통제, 넷째, 국가기구와 민간기구의 인사에 깊이 간여, 다섯째, 비밀경찰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광범하게 통치에 운용한다. Edward Friedman, “Three Leninist Paths Within a Socialist Conundrum”, in D. J. Solinger (ed.), Three Visions of Chinese Socialism (Boulder: Westview Press, 1984), pp. 11-45.

V. 折衷의체제의 등장: 儒家的 新權威主義-開發獨裁體制

위에서는 체제변화의 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현상을 몇가지 변수를 열거함으로써 살펴 보았다. 상기요인의 量적인 증대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체제의 質적인 변화를 몰고 올것이 틀림이 없다.³¹⁾ 결론적으로 중국은 유가적 레닌주의의 체제에서 탈이념의 심화, 인센티브제의 확대, 一人 카리스마 부재로 인한 정치이념, 경제부문,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로 인해 정치체제의 질적변환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소련과 동구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갑자기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하기에는 앞서 논의한 문화적 永續性的 측면과 偶像破壞적 측면이 서로를 억제하고 있어서 미국과 서구가 기대하는 정도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급격한 이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³²⁾ 본고에서는 중국정치문화의 이상과피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체제변화의 요인과 중국적 전통고수의 영속성간의 새로운 折衷과 타협으로 21세기 초반의 중국의 정치체제는 “유가적 신권위주의개발독재체제”의 특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정의 하였다.

21세기를 맞는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하지만 사회, 경제, 문화적측면에서는 부분적 다원주의를 허용하는 신권위주의적 태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즉 공산당이 군과 정부를 통제하고 국가주도의 현대화와 경제개발을 촉진하려는 개발독재가 성립이 될 것이다. 21세기 초반에도 중국은 거대한 영토와 인구등의 문제로 민생과 국가안보를 해결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봉건적인 권위주의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신권위주의개발독재체제인 것이다. 다음과 같은 체제특성이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1. 政治的 正統性: 유가사상과 전통적가치

탈이념현상의 심화는 새로운 통치이념의 확립을 불가피 하게 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공산당은 사회주의의 계급투쟁의 강화, 반우파투쟁에 의한 사회적 동원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江-朱체제는 공산당을 유가사상의 대변자로 자처하면서 새로이 중국인민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공산당은 자신들의 이념적 기초인 사회주의 이념이 대중적 구심점을 상실해 감에 따라 일당독재의 정당성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경제, 문화적 영역에서의 다원주의는 이러한 경향을

31) 毛澤東의 矛盾論에 의하면 중국사회발전의 세가지 법칙이 있다고 한다. 즉, 1)상반적 요소들의 투쟁과 결합, 2)양에서 질로의 변화, 3)부정의 부정이다. 이러한 법칙은 보편적이며 영원하다고 한다. 毛澤東, “矛盾論”, 毛澤東選集, 第1卷 (北京: 人民出版社, 1964), pp. 287-326.

32) 소련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적 체제변화가 왜 중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비교정치학적분석 시도는 Sujian Guo, “Democratic Transition: A Comparative Study of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Issues and Studies, August 1998, pp. 63-101.를 참조 할 것. 이 연구에서는 소련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상이점변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과는 다르게 소련과 중국에서의 체제변화분석에서 양국이 모두 민주화로 가고 있다는 유사성변수의 증대로 분석을 한 자료로는 다음을 참조. Minxin Pei, From Reform to Revolution: The Demise of Communism in China and the Soviet Un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는 가부장적인 공산당의 권위주의를 합리화 시켜줄 수 있는 유가사상과 대중적인 반외세의 민족감정, 경제적인 가시적 업적에 호소함으로써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³³⁾ 즉 실제로 중국의 언론들은 시장개혁의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중국사회주의의 도덕적 위기와 정신오염을 막는 최선의 대안으로 유가사상을 강조하기 시작 하였다.

江澤民은 유가사상이 공산당원 및 정부의 관료들이 서구의 부르조아사상에 오염되는 것을 막는 사상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³⁴⁾ 따라서 鄧사후의 공산당에게는 유가사상을 운용하여 이념적 공백을 메꾸고 한편으로는 반부정부패운동을 통해 공산당지도체제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권력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사상을 과도기 중국공산주의체제의 “自己正統化裝置”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³⁵⁾

유가사상에 대한 지도자들의 태도는 毛-鄧의 막시즘의 중국화, 중국식사회주의에서 외래사상인 사회주의를 중국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 알 수 있다. 毛는 유가사상에 대해서 모순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공식적인 정치이념으로서의 유가사상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취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유가사상을 봉건적 잔재라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그는 “중국에는 반봉건문화가 있는데 이는 반봉건정치와 반봉건경제상의 것들로 孔子를 숭상하고 그 것을 익힐 것을 주장하고 禮敎의 사상을 제창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³⁶⁾고 하여 유가사상을 칭찬의 대상으로 비난하면서도 “孔孟에는 일부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비역사적인 것이다”³⁷⁾라고 하면서 옹호하기도 하였다.

鄧은 그의 문선이나 어떠한 연설에도 유가사상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유가적 민본주의사상으로 친유가적인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⁸⁾ Pye는 유가문화의 특성은 교육과 자기수양을 통하여 완전케 다다르며 그것은 특수한 능력을 통한 효율성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고 하였다. 鄧시대의 특성은 업적으로서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기술관료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는 實事求是와 經世致用을 중시하는 新儒家사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 주장 하였다.³⁹⁾ 또한 중국에 있어서 유가문화는 서양사상의 오염내지는 해독으로부터 중국

33) Perry Link, “현대중국의 모색: 중화질서와 그 가치”, 사상 (사회과학원, 1993년 가을호), p. 146에서 재인용.

34) 人民日報, 1995. 5.16.

35) 중국공산주의체제는 일반적으로 이념적 정통성을 확립하여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일컬어 “자기정통화장치”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A. G. Meyer, “Authority 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in Lews Edinger (ed.), Political Leadership in Industrialized Societies in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Jhon Wilet & Sons, Inc. 1978), p. 97.

36)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毛澤東選集, 第 2卷, pp. 694-695.

37) 屠承先, “論毛澤東對孔子思想的批判繼承”(四川: 毛澤東思想研究, 總第 25期, 1989년 第 4期), pp. 14. 1964년 문화대혁명기간에도 毛는 공자에 대한 긍정적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Merle Goldman, “China's Anti-Confucian Campaign, 1973-74”, The China Quarterly, September 1975, p. 437.을 참조

38) David Goodman, Deng Xioping (London: Cardinal, 1990): 이영화, “등소평정치리더십의 연구”, 中國研究, 卷 18권 3호, 대륙연구소, 1994 가을, pp. 127-136을 참조.

39) Lucian Pye, The Mandarin and the Cadre: China's Political Culture, p. 50. 신유가사상의 특징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Benjamin I. Schwartz, “Some Polarities in Confucian Thought”, in David S. Nivison and Arthur F. Wright (eds.), Confucianism in Ac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50-62; Hao Chang, Chinese Intellectuals in Crisis: Search for Order and Meaning (1890-191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Hao Chang, Liang Ch'i-ch'ao and Intellectual

고유의 것을 보호해 주는 中體西用的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⁴⁰⁾

江澤民의 유가사상에 대한 견해는 毛-鄧보다 더 적극적이다. 이는 탈이념의 시대적 특색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견해는 1989년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孔子탄생 2540주년기념식과 학술 회의에서의 연설과 담화에서 잘 나타난다.⁴¹⁾ 그는 유년시절부터 三字經을 통해 유가사상을 접했다고 한다.⁴²⁾ 그는 “孔子는 위대한 사상가이고 그의 사상은 중국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 사상에 대해서는 그 정수를 받아들이거고 부정적인 것은 버려야한다”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평가하였다.⁴³⁾ 이렇게 江澤民은 유가사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德과 才의 둘중에서 德을 강조하며 국가의 영도권을 사회주의이념에 충실한 공산당지도자들이 장악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⁴⁴⁾ 1991년 7월 중국공산당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담화에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은 반드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또한 충분히 사회주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여 중국의 문화를 일으키고 또한 세계문화의 우수한 성과를 흡수하여야 한다”⁴⁵⁾라고 중국의 전통과 사회주의의 결합을 계속 강조하였다. 이렇듯 鄧사후 江-朱체제의 유가사상의 계승과 아시아적 가치의 현대화강조는 탈이념화시대에 대비한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발전전략, 이념화의 시도이며 정치사회화전략인 것이다.

江澤民시대의 중국은 이전의 鄧시대의 사회주의이념과 당지도체제의 공고화작업을 계승해야 하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발전된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하는 과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과거를 지속하면서 과거를 청산하여 새로운 이념적, 제도적 정통성을 확립해야하는 모순적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鄧의 개혁이래 서구의 무형적 영향으로 사회주의정신문명을 강조하여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의 파급과 영향을 제압하려 했으나 탈사회주의 이념화의 전개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여기에 정치적 권위주의와 實事求是의 爲民사상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신유가사상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유가문화의 강조는 이러한 과거의 계승과 이상파괴적 전통 - 현실의 개혁 및 부정 - 을 동시에 획득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미국등 서구와 차별화를 부각시키려는 중국으로서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毛-鄧체제와 江-朱체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毛-鄧시대의 중국식 사회주의혁명이 첫번째 절충이라면 21세기를 맞이한 江-朱체제는 전통과 혁신의 두 번째 타협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Transition in China, 1890-1907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p. 15-34.

40) Lucian Pye, Asian Power and Politics: The Cultural Dimensions of Author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 195.

41) 中國孔子基金會編, 孔子誕辰 2540周年紀念學術討論會論文集(上, 中, 下) (上海: 三聯書店, 1992)을 참조할 것.

42) 瞭望週刊, 1990년 第 11號, pp. 4-6.

43) 方雪純, “江澤民의 思想과 리더십”, 共產黨研究, 제 13권 제 7호 (극동문제연구소, 1991년 7월호), p. 64에서 재인용.

44) 陣野平, “德才兼備, 以德爲主: 論選拔幹部的標準”, 人民日報, 1991.9.1.

45) 江澤民, “在慶祝中國共產黨成立七十週年的講話”,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十三大以來: 重要文獻選編, 下,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 1644.

2. 아시아적 가치와 國家主導의 개발

21세기 중국정치체제가 변화하는 이념적 환경과 현실과의 적응 즉 유가적 권위주의-개발독재체제가 된다면 경제개발의 거시적 전략은 당연히 유가문화적가치 즉 아시아적 가치를 추진력으로 하는 국가주도의 현대화를 추진하리라 예상이 된다. 공산당은 아시아적 가치와 유가사상의 특징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기본적 원리로서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단결심과 사회안정을 꾀고 정부와 기업체는 그 구성원들에게 안전과 지속성, 응집성, 그리고 결속력을 제공해 준다고 한다. 국가의 발전은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조화,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될 수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Max Weber는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현대화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유가사상의 전통은 서양의 기독교적 전통과 달라서 세속적이익을 구하는 것을 소인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배척하려는 경향으로 세속적생활가운데 합리적인 경제윤리를 형성할 수 없었다 한다.⁴⁷⁾ 오랫동안 이러한 베버의 패러다임의 영향은 많은 아시아와 서구국가들에게 하나의 후진의 아시아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 이론적 조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아시아신흥공업국들(NIES)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유가적 정치문화도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이념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의를 등장시켰다.

杜維明은 베버와는 달리 유가문화가 개발도상국의 현대화에 기능적으로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한다. 현대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약화시켜 준다고 한다. 즉 중국에서의 현대화도 유가문화의 實事求是적 측면과 개혁체제의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實用主義를 활용하여 현실에 적용한다면 NIES의 경제발전의 정신적 기초인 유가적 현대화를 이룰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유가사상의 덕목들 중에서 가족주의, 공동체중심주의, 엄격한 위계질서, 사회적도덕성과 책임감, 농경사회의 근면성,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등은 아시아국들의 자본주의현대화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족주의는 자본주의사회의 복잡하고 비인격적인 조직과 제도를 대신하여 공동체내의 화합적 인간관계를 조성하여 개발도상국의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평가되었다.⁴⁸⁾

중국의 아시아적 가치에서의 현대화전략은 “사회주의초급단계론”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기본틀을 유지한채 공산당독재와 국가주도에 의한 경제개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趙紫陽은 경제개혁을 옹호하고 정치개혁을 연장하기 위해 이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 이론은 개혁의 후유증인 부르조아적 자유화를 억제하는 데도 필요한 것이라고

46) 유가사상과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특히 Joseph P. L. Jiang (ed.), Confucianism and Modernisation: A Symposium의 모든 논문들을 참조할 것. 또한 肅公權, 中國政治思想史(上), 肅公權全集之四卷(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2), p. 62을 참조.

47) Max Weber, The Religion of China: Confucianism and Taoism (Trans by Hans Gerth: Glenco, Il: Free Press, 1951), p. 31.

48) 杜維明, “儒家倫理和東方企業精神有關麼?”, “工業東亞與儒家精神”, “儒家傳統的現代轉化”, “傳統文化與中國現實”, 儒家自我意識的反思(臺北: 聯經評論, 1990), pp. 101-104, 135-158, 159-188, 227-272. 특히 이 논의에 대해서는 전제국, “아시아적가치 관련 동서논쟁의 재조명”, 한국과 국제정치, 제 15권 제 1호, 1999년 봄, pp. 149-168.을 참조할 것.

주장하였다. 1987년 1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속개된 제 13기 전당대회에서 趙는 사회주의초급단계는 1950년대 후반부터 생산의 국유제, 공유제로 변혁했을 때 시작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단계는 그 때부터 10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이 기간동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며 공산당에 의한 현대화를 완성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중국은 연해지역에서 노동집약적인 공업화를 성공시켜서 그것을 내륙으로 전파하게 만들어 중국인들이 생활수준을 보다 나은 상태로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이 계획을 능가하여 경제를 주도하도록 개혁을 더욱 진척시켜야 한다고 한다.⁴⁹⁾

이 이론은 江-朱체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국가주도의 경제개혁을 합리화 시키고 있다. 즉 1999년 全人代에서 헌법개정이 이루어 졌는데 序言 제 7단락에 鄧이론의 내용을 삽입하는 한편, 현행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이론을 “중국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 처해있다”를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할 것이다”로 바꾸었다. 또한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보충하고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하되 다양한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6조)는 것을 추가하였다.⁵⁰⁾ 이에 따르면 중국은 21세기에도 국가주도의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분배원칙을 상황에 따라 병행 발전시킨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국가경제를 관리감독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있다.

중국은 2000년까지 매년 약 6%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중국은 12억의 인구에게 식량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현재 중국이 식량, 주택, 교통에 대하여 인민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은 국가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은 식량생산보다도 식량 소비에 대해 12배 이상의 재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⁵¹⁾ 이처럼 거대한 인구와 그에 따른 사회 문제, 유가문화의 영속성의 영향으로 중국은 구소련과 동구와는 달리 과격한 체제변화를 쉽지 않게 하고 있다. 그만큼 공산당 일당독재와 국가주도에 의한 개발전략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개도국에서 볼 수 있는 신권위주의개발독재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1989년 天安門사태 이후에 탈이념현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질서로 가지 않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게 이 것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취한 연후에 서서히 정치적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국의 통치방식은 유연한 레닌주의적 공산당독재와 관료적 권위주의의 특성이 커지고 있다.⁵²⁾ 즉 당과 정부관료들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고 유가적 권위주의 정치문화와 계획경제, 국가주도의 개발전략등으로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성장은 조화적으로 전개될 수있다.

그러나 개발독재체제는 아시아와 남미의 제국의 예에서 보듯이 분배위기가 심화될 우려를 가지

49) 趙榮陽, “沿着有中國特色的初社會主義道路前進-在中國共產黨第13屆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1987. 11.4.

50) 이회옥, “헌법개정통해 21세기 전략구축”, 통일한국, 1999년 4월호, pp. 73-75에서 재인용.

51)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9 1991, p. 6.

52) 안병준, 중국현대화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1992), pp. 253-255.

고 있다.⁵³⁾ 江-朱체제의 중국은 근래에 WTO가입을 추진하며 국제화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정치개혁을 거부하면서 상반된 국가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화는 필연적으로 민주화, 개인화, 복지국가에의 요구가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상태에서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개발독재체제가 야기하게 되는 분배위기와 정당성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미래가 주목이 되는 것이다.

VI. 結 論

근래에 중국은 전국이래 정치이념적으로 가장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마치 이러한 현상은 淸朝가 몰락한 후 五四運動(The May-Fourth Movement)을 거치며 수많은 知識人, 先覺者들 - 康有爲, 梁啓超, 孫文, 胡適, 陳獨秀, 魯迅, 毛澤東등 - 이 겪었던 상황과 비슷하기도 하다. 그 때에도 수많은 지식인들과 정치엘리트들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혼란한 중국사회를 위해서 思想的自立과 政治的獨立을 위해서 刻苦의 노력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지적전통은 儒家사상적 전통에서의 지식인들의 국가와 사회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歷史的 使命”(Historical Mission)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래로 中國社會는 鄧小平의 改革과 開放政策으로 인해 외국과의 교류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증대하는 대외교류는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도전적인 현상, 즉 西歐式的 自由主義的 知的傾向과 資本主義風潮의 범람을 가져와 결국은 1989년 “六-四 天安門事態”와 같은 체제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이는 중국공산당 정치엘리트와 사회의 각부문의 지식인들에게 거대한 사상이념적 解決課題이자 挑戰이 되고 있는 것이다.

1919년 五四運動에서의 전반적 우상파괴와 민주주의와 과학의 도입 주장은 결국 공산주의혁명으로 절충적인 “유가적 레닌주의정치체제”를 가져왔다고 위에서 논의하였다. 1989년 六-四天安門사태에서도 학생과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체제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적 부패를 비난하고 철저한 정치개혁 즉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이는 五四運動에서 보여준 중국의 우상파괴적인 개혁적 전통의 표출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파괴적 혁신운동은 五四運動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장의 정치개혁을 가져오는 데는 실패 하였다. 학생들과 소수지식인들의 이념,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면적 개혁주장은 현실적으로 기존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이념적 정치적 기반을 가지지 못하였고 더욱 중요하게는 구 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저항 즉 유가문화의 영속성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53) O'Donnell은 남미국들의 근대화 과정에서 수입대체산업위기의 극복을 위해 민중정권을 붕괴시키고 군사정권에 의한 관료적 권위주의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심화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이 결탁하여 노동부문을 체계적으로 억압, 배제하는 국가체제등장을 가져온다. Guillermo O'Donnell,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Studies in South American Poli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Guillermo O'Donnell, Phil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eds.),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ide: Prospects for Democracy*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Alfred Stepan, *The State and Society: Peru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그러나 1989년 六-四天安門사태의 최대의 공헌은 중국정치체제가 장기적으로 “脫社會主義理念化, 經濟改革”의 길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체제변화를 유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큰 歷史的 貢獻은 중국의 엘리트들과 민중들의 이상과과격 개혁정신이 五四運動이래로 아직도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다.⁵⁴⁾

1989년 六-四天安門사태는 중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비록 1999년 天安門사태 10주년을 맞은 중국이 건재하고 안정속에서 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특별한 소요사태 없이 지나가고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六-四天安門사태의 구호들이 사회의 저변에 살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운은 1919년 五四運動에서 유래된 “과학과 민주주의”정신으로서 이는 중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중국사회와 엘리트들에게 변화와 발전의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신적 지표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유가적 레닌주의정치체제는 이러한 “과학과 민주주의, 변화와 개혁”정신에 의해서 鄧小平의 퇴진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중국사회에 가져올 것이 틀림이 없다. 즉 본고가 제시한 “유가적 신권위주의-개발독재”체제인 것이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1989년 天安門사태후에도 소련과 같은 체제와해의 길을 가지 않고 생존할수 있었던 것은 다음 몇가지로 살필수 있겠다. 첫째로,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 있었으며 또한 그의 개혁이 단시간에 너무 이상을 추구하여 정치적 전략과 대응이 이상을 받혀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四人幫이라는 보수강경주의자들과 華國鋒집권 과도기를 재빨리 정리하여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인민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둘째로, 중국의 개혁은 소련의 대외강경책이 - 아프간침공, KAL기 격추등 - 정점에 이른 시기에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미국등 서방국가들의 대소전제심리에 편승하여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들수 있겠다. 이로써 소련은 결정적 시기에 도 아프간침공등 극한대결로 치달았으나 중국은 개혁을 착수하여 90년대에 탈냉전시기에 도 중국식사회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여유를 다지게 되었다. 셋째로, 鄧小平의 부분적 인센티브제 도입은 농촌의 고질적인 식량부족문제에서 상당한 해결을 보고 경제발전의 기틀을 세우는데 성공하여 六-四天安門사태 때에도 대다수 농민들은 동요되지 않았다.

1997년 鄧사후에 예상했던 지도층의 불안은 아직은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 현재 江澤民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보수와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즉 공산주의 이념의 절대적견지, 레닌주의 일당독재의 강조와 동시에 개방과 인센티브제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江-朱체제의 이같은 상반된 국가전략과 정책은 탈이념화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순탄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경제위기에 도 불구하고 성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개혁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이해도에서 진전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만족으로 정치적 개혁요구는 현재까지는 공산당일당독재에 위협적인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중국의 정치체제의 문제는 누가 어떻게 개혁정책을 추진하느냐 보다는 장기적으로 공산당에 의한 권위주의체제가 언제까지 정치개혁 - 예를 들어 自由選舉, 多黨制 - 을 유보한채 독재체제를 유지할수 있느냐가 더욱 큰 이슈라고 본다. 왜냐하면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54) 이러한 경향이 가장 잘 들어나는 것은 중국의 정치개혁과 전반적 서구화를 주장하는 지식인들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 특히 다음을 참조할 것. 陸鑒, “지금도 과학과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민주주의 개혁과 개방에 대해”, 方勵之(이주로 역), 中國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울: 도서출판 예음, 1992), pp. 22-23, 24-31; 明薈, “중국이 당면한 열가지 문제”, 같은 책, pp. 32-57.

경제개혁에 수반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요구들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 요구들이 경제개혁이 가속화되고 있을 때는 숨을 죽이고 있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거나 급속한 개발로 인한 사회문제 - 인플레이, 고실업률, 분배의 불균형, 관료의 부정부패등 - 가 첨예화 하게 되면 또 한번 질적인 체제변화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탈이념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江-朱체제의 折衷적 체제 즉 儒家的 新權威主義開發獨裁가 단기간 지속될 것이나 중국의 정치체제는 장기적으로 역동적 변화의 가능성을 더욱 광범위하게 가지게 될 것이다. 유가적 신권위주의-개발독재체제는 국가주도의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해 결국은 정보흐름의 자유스러운 공개와 확대, 자본주의적 인센티브제의 확대라는 정치과정에서의 투입기능의 다원화를 촉진시켜 시민사회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고 그러면 정치체제도 이에 맞게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⁵⁵⁾ 이러한 경향은 결국 “多黨制의 導入여부”, 또는 나아가서 “社會主義의 維持냐 放置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理念논쟁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 중국사회에 법치주의, 다당제, 국제화추세등이 지속하게 된다면 최소한 10년후부터 20년 이내에 중국은 또 한번 체제이념적 변화의 문제에 봉착하리라 예상이 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대로 중국의 유구한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 영속성 등으로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는 차별성을 지닌 중국특유의 새로운 절충적이념에 의한 정치체제가 등장할 것이다.

55) 정치적 투입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avid Easton,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World Politics, Vol.X, No.3, April 1957; Gabriel Almond & James Coleman (eds.),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p. 17.